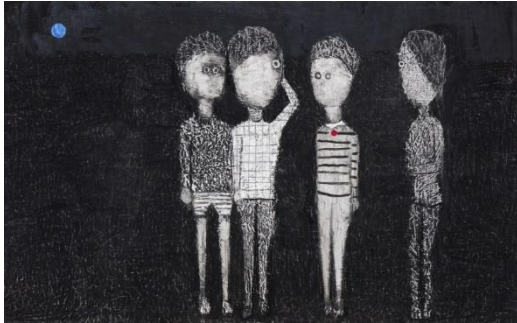


## 오세열: 무구한 눈

### Oh Se-Yeol: The Innocent Eye



무제 *Untitled*

2017

혼합매체 Mixed media

80x130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오세열: 무구한 눈

전시기간 : 2017년 11월 18일(토) - 12월 17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32점

####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mailto:wcw@hakgojae.com)

박미란 [miran@hakgojae.com](mailto:miran@hakgojae.com)

02-720-1524~6

####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71118-20171217 오세열\_무구한 눈

####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17년 11월 18일(토)부터 12월 17일(일)까지 오세열(1945, 서울) 개인전 '오세열: 무구한 눈'을 연다. 지난 2월 학교재 전관에 걸쳐 선보인 대규모 개인전 이후 9달 만에 다시 개최하는 전시다. 학교재에서 개인전을 연 뒤 오세열은 아트바젤 홍콩, 키아프 등 국제 아트페어에서 컬렉터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판매를 이끌어냈다. 크리스티 홍콩, K 옥션 등 국내외 미술 경매 시장에서도 추정가를 뛰어넘는 낙찰가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학교재는 이번 전시에서 오세열의 인물 그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인물'은 오세열의 40년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커다란 주제다. 그는 인물을 중심으로 숫자 그리고 오브제로 소재를 발전시키며 작품 세계를 넓혀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세열이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인물화 32점을 시대별로 두루 살펴볼 수 있다. 70년대의 목가적 풍경 위에 아른거리는 인물의 형상에서부터 80년대의 거친 인물상, 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작품에 등장하는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복선의 인물 그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 2. 전시주제

### 기호, 오브제, 인물의 반(半)추상 - 오세열의 독특한 작품세계

70~80 년대 역동적인 사회의 변화를 겪으며 작가들은 저마다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오세열의 경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오롯이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 추상도 구상도 아닌 반추상적 화면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조형을 구사했다. 오세열 그림의 대표적인 소재로 기호, 오브제, 인물을 꼽을 수 있다. 그의 화면 위에는 숫자나 도형 등의 기호적 형상과 단추, 장난감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 그리고 인물의 형상들이 주로 등장한다. 오세열은 구상적 요소와 추상적 요소가 적당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하며 독창적인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인물 형상이 뚜렷해질수록 배경은 단순화되어 뒤로 밀려나며, 기호와 오브제들이 주인공이 된 화면 위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학고재는 지난 2 월 개최한 오세열의 대규모 개인전에 이어 그의 인물 그림들만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상하이 전시까지 고려하면 이번이 오세열이 학고재에서 가지는 세 번째 개인전이다. 오세열은 최근 아트바젤 홍콩, 키아프 등 국제적인 아트페어 및 크리스티 홍콩, K 옥션 등 미술 경매 시장에서 컬렉터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인기가 단색화에 편향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오세열의 작품이 누리고 있는 국제적인 인기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장기적인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내 작가들에 대한 꾸준한 탐색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의 미술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의미 있는 작가들을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상의 본질적 순수를 바라보는 '무구한 눈'

오세열은 대학 시절 가장 존경한 예술가로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를 꼽는다. 지난 2 월 학고재에서 연 개인전에 출품한 유화 작품 <무제>(1967~8)에 클레의 화집을 그려 넣기도 했다. 파울 클레를 포함해 피카소, 뒤뷔페 등 20 세기 미술사의 거장들은 '아동화로 돌아가라'는 표어를 유행시키며 유년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던 바 있다. 선입견을 떨치고 순수한 시선으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자는 의도였다.

오세열의 인물 그림은 아동화를 연상케 한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의외성과 신선미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는 유년기의 어렵풋한 기억에 기반하여 직관적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화면 위에 어린아이 같은 낙서와 이미지들을 새겨내거나 의도적으로 서툴게 그린 인물들을 배치한다.

오세열의 화폭 위에서 숫자와 형태들은 본래의 의미를 떠나 이미지 그 자체가 된다. 오세열은 어린아이와 같은 '무구한 눈'을 획득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본능과 무의식을 찾고자 한다. 대상의 본질적 순수를 바라보고 탐구하려는 노력이다.

### **현실의 불행과 아픔을 치유하는 예술**

오세열은 예술을 매개로 현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인간의 불행한 모습을 표현해보려 했다.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신적인 것이 소멸해가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세열은 한국전쟁 이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낸 세대의 사람이다. 그는 성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며 욕심에 물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화폭으로 끌어와 표현하는 일을 통해 역설적으로 치유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다.

오세열은 자신이 그리는 불완전한 모습의 인물을 '백치와 같은 사람'이라 일컫는다. 정신적인 것이 소멸해버린 상태의 불행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팔이나 다리가 하나씩 없는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 위에 뻗뻗하게 누워 있다. 오세열은 이 인물들에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불행한 현대인을 투영해 본다.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반영이다. 오세열은 인물들 주위로 단추, 장난감 따위의 천진한 오브제를 늘어놓거나 숫자나 드로잉 따위의 낙서 같은 기호들을 새긴다. 작업 과정을 통해 상처 입은 인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감싸 안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다.

### **3. 작품소개**

오세열의 작품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작업 방식과 화면 구성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표현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세열의 화면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반추상에 가깝게 나아가기 시작한다. 빛바랜 듯 서정적인 화면 위에 인물 형상들이 아른거린다. 왜곡, 해체, 변형된 형상들은 그 내용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1980년대에 이르면 칠판에 백묵으로 낙서한 듯, 벽을 긁어낸 듯 거칠게 표현한 인물상이 등장한다. 표현적인 필치로 그려진 인물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은 배경의 조화가 강렬한 인상을 표출한다.

1990 년대의 인물화에는 색채를 도입했다. 이 시기부터 인물 형상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다. 2000 년대부터 최근작에 이를 수록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배경은 아예 검은색이거나 노란색, 빨간색 등 높은 채도의 단색으로 채운다. 인물의 형상은 배경으로부터 눈에 띄게 분리되어 물고기처럼 유영하거나, 화면에 가로놓는 등 변화된 동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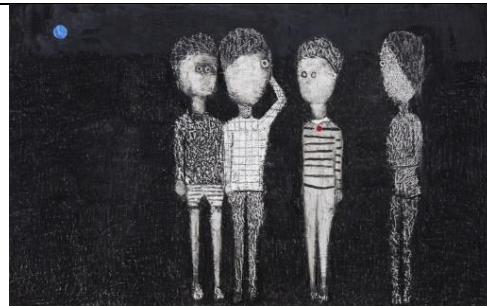


**무제** *Untitled*

1977  
 혼합매체 Mixed media  
 130x130cm

**무제** *Untitled*

1984  
 혼합매체 Mixed media  
 100x100cm



**무제** *Untitled*

1991  
 혼합매체 Mixed media  
 73x91cm

**무제** *Untitled*

2017  
 혼합매체 Mixed media  
 80x130cm

#### 4. 작가소개

오세열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즐거워 하루 중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다. 새로 도배한 벽 위에 그림을 그려 혼란 기억도 여러 번이다. 오세열은 유년기의 이러한 기억들을 작품의 기반으로 삼는다. 본능에 이끌려 그려나가던 어린 시절의 이미지들을 떠올려 화폭에 끌어오려는 시도다. 오세열은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의식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을 찾고자 한다.

중학교 때 미술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삼십 대에는 조선회랑, 진화랑 등 당대 최고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서른아홉 살이 되던 해에 유럽의 대표적인 아트페어 피악(Fiac, 1984)에서 남관, 박서보, 김기린, 이우환 등과 함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때 프랑스 미술계 인사들에게 높은 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품 판매를 이끌어내 주목받았다. 당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이 판매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페어에도 작품을 출품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세열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과 중앙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학교재갤러리(서울; 상하이), 폰트갤러리(런던), 보두앙르봉갤러리(파리)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교토시립미술관(교토, 일본), 부산시립미술관(부산)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대전시립미술관(대전), 프레데릭 R. 와이즈만 예술재단(로스앤젤레스, 미국) 등 국내외 주요 미술 기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무구’한 눈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경기대 교수)

#### 1.

오세열이 인물 그림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대표작을 망라한다. 일종의 ‘인물화 회고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인물 이외에도 여러 부류의 모티프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꽃, 풀, 나무, 과일, 채소 같은 자연 소재다. 둘째는 자동차, 배, 자전거, 선풍기 같은 문명의 기기(利器)나 모자, 넥타이, 안경, 단추, 장난감, 우산 같은 소소한 생활소품이나 액세서리다. 셋째는 아라비아 숫자, 원이나 사각, 소용돌이 같은 추상적인 형상이다.

오세열은 이 다채로운 세상사의 모티프를 거의 무작위로 낙서하듯 화면에 펼쳐놓는다. 여기에 다 작가가 화면 바탕(지지체)에 치밀하게 일구어놓은 물감층에서 미묘한 마티에르의 잔치가 펼쳐진다. 사물의 본래 크기는 서로 어긋나 있으며, 따라서 원근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무구(無垢, innocent)의 시선’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공과 추상적 형상의 모티프가 각각 독자적인 등가(等價)의 기호처럼 화면에 자리를 틀고 있다. 결국, 모티프 제 각각이 화면의 주인공이어서, 이 주인공들끼리 동시다발로 연쇄적인 이야기를 촘촘히 엮어낸다. 바로 이 이야기 저장고로의 여행 혹은 ‘기억의 자적(自適)’이 오세열 그림의 핵심이다.

#### 2.

오세열의 인물 그림은 다른 모티프를 그릴 때와는 조형 문법이 좀 다르다. 대체로 인물을 화면에 가득 채워 단독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나이나 성별마저 모호한 그 인물상은 다른 어떤 모티프보다 크게 그린다. 상대적으로 인물의 배경은 단순화되고, 다른 모티프의 노출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인물을 모티프로 삼는 이상,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나 심리적

노림수 같은 알레고리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세열이 걸어온 인물 그림의 이력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서도 지속과 변혁의 조형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오세열의 1970년대는 구상전(具象展) 공모전의 금상 수상으로 대변되는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재현적(representative) 구상에서 벗어나 '반(半)추상'에 가까운 작품에 몰두했다. 화면은 만고(萬古)를 거쳐 퇴색된 벽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형상을 왜곡, 해체, 재구성해 그 내용을 대단히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저 시간의 지층에서 아련히 피어오르는 설화적 목가적(牧歌的) 풍경에는 인물 형상들이 어른거린다. 말이나 소와 함께 산야를 뒹구는 인물상은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골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목가적 서정성이야말로 오세열 작품의 저변에 꾸준히 흐르고 있는 시적 정감에 다름 아니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면, 칠판에 백묵으로 낙서하듯이, 벽면을 긁어내듯이 거친 인물상을 그려냈다.(조야한 표현의 기괴한 인물상은 뒤뷔페(Jean Dubuffet)의 '아르 브뤼(Art Brut)'와 같은 과격한 작품에 버금간다.) 오세열의 이력 중에서 가장 표현적인 감성이 두드러졌던 시기다. 가공되지 않은 야생 혹은 본원주의의 육박! 화면과 마주하고 있는 화가의 몸의 흔적, 거친 호흡과 체온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작품이다. 무거운 회색이나 차가운 푸른색 배경에 유령처럼 우뚝 서 있는 절규의 인간상은 1980년대라는 암울했던 이 땅의 시대상과도 자연스럽게 겹친다.

1990년대부터 오세열의 인물상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형태가 훨씬 더 간결해지고, 다른 모티프와 달리 화려한 색채를 도입한다. 화면에는 인물상이 주인공으로 오롯이 부각된다. 그럼에도 주인공인 인물상은 결코 온전한 자태가 아니다. 팔과 다리는 대체로 몸통에 달싹 붙어 있다. 얼굴과 사지(四肢)는 상식적인 조망에서 벗어나 있다. 입체파 화가들의 시선처럼 신체 부위마다 전망이 따로따로다. 얼굴은 왼쪽, 팔은 정면, 다리는 오른쪽으로 향해 있다. 얼굴 또한 최소한의 조형만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작 정면을 바라보는 눈 하나 덩그러니 그려놓았는데, 버젓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 최근작은 인물이 가로누워 있는가 하면, 허공을 날아가듯 혹은 물고기처럼 유영하듯 변화된 동세를 보이고 있고, 군상이 등장하는 등 보다 다양한 복선을 깔고 있다.

멍한 듯 표정 없는 얼굴, 큰 동작 없이 움츠린 신체! 오세열의 인물 그림은 기술적으로 미숙한 듯 보이지만,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의외성과 신선미로 우리들 마음을 붙잡는다.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 자연 그대로의 조형에서 독창적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세열의 인물 그림은 지식, 문화, 교양, 취미에 길들어 있는 우리의 눈을 본능과 무의식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다. 인간의 본능과 무의식의 세계는 유년시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유년기란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원점이요 시원(arche)이다. 돌이켜보면, 20세기 미술사에서도 유년주의의 회귀, 이른바 '아동화로 돌아가라!'라는 표어가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대 유행했던 시절이 있다. 이 계

열로 피카소, 클레, 뒤뷔페 같은 거장들을 호명할 수 있다. 오세열의 예술도 아동화 같은 무구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직접 사물의 실상을 포착하는 일. 무구한 눈은 '마음 그대로의 예술'을 낳는다.

3.

그러나, '무구한 눈'의 해석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고프리치(Ernst Gombrich)가 "무구한 눈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듯이, 모든 지각은 많은 적든 이미 코드(code)화되어 있다. 무구한 눈은 단순히 유년시절로의 회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예술가란 과거와 시원으로 '퇴행'하는 재능보다 미래와 종말로 '전진'하는 재능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현대예술에서 '무구한 눈'은 마땅히 어린이의 눈이라는 좁은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타니가와 아츠시(谷川瀝) 같은 미학자는 '무구한 눈'을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순수지각', 후설(Edmund Husserl)의 '판단정지',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y)의 '낯설게 하기',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거리 두기' 등과 같은 개념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험을 제쳐두고 순수지각만으로 인식하기, 선(先)판단을 중시시키고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기, 일상의 것을 다른 결합의 규칙으로 드러내기, 친숙한 현실의 주변을 생소하게 하기. 바로 이 지점에서, 오세열의 예술은 아동화나 기억의 층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석의 길이 활짝 열린다. '무구한 눈'은 결국 상투화된 인식의 코드를 파괴함으로써 정당한 힘을 얻는 것이리니....

## 6. 작가약력

### 오세열

1945 서울 출생  
1969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197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수료  
현재 양평에서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 2017 **오세열: 무구한 눈, 학교재갤러리, 서울**  
 해든뮤지움, 인천  
 오세열: 암시적 기호학,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16 기억의 층위, 학교재갤러리, 상하이  
 아트이슈프로젝트, 타이베이  
 기억의 층위, 폰튼갤러리, 런던  
 기억의 층위, 한국문화원, 브뤼셀  
 기억의 층위, 한국문화원, 파리
- 2015 오세열 - 신작, 보두앙르봉갤러리, 파리
- 2008 샘터화랑, 서울
- 2000 샘터화랑, 서울
- 1997 예화랑, 서울
- 1991 예화랑, 서울
- 1987 가람화랑, 서울
- 1986 진화랑, 서울
- 1984 진화랑, 서울
- 1982 신세계미술관, 서울
- 1977 문화화랑, 서울
- 1975 조선화랑, 서울

## 주요 단체전

- 2017 오세열 · 김동유, 갤러리조은, 서울
- 2016 사중주, 스페이스 칸, 서울
- 2015 구상과 자각, 아트이슈프로젝트, 타이베이
- 2014 사유로서의 형식 - 드로잉의 재발견, 뮤지엄 산, 원주
- 2010 오세열 · 버넌 피셔, 서미갤러리, 서울
- 2007 무의식, 두방현대공간, 마오리, 타이완  
 오세열 · 유종호, 샘터화랑, 서울
- 2003 내 안의 풍경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현대미술조명, 예화랑, 서울
- 2001 박스, 가람화랑, 서울

- 1999 한국미술의 자생적지평, 포스코미술관, 서울
- 1998 대전 - 공간확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1994 현대회화 3인, 청화랑, 서울  
 한국지성의 표상, 예술의전당, 서울
- 1992 오세열 · 안토니 카마라사, 샘터화랑, 서울
- 1991 뉴 미디어 · 뉴 이미지, 가람화랑, 서울
- 1990 한 · 일 현대미술 동질과 이질,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갤러리상문당, 서울  
 개관기념, 예술의전당, 서울
- 1989 서울 - 교토 37인, 교토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개념과 방법으로서의 미술, 갤러리 2000, 서울
- 1988 한국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개관기념, 서미갤러리, 서울
- 1986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3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1 청년작가 10인, 신세계미술관, 서울  
 제 3회 조형, 관훈미술관, 서울  
 제 2회 제작, 예화랑, 서울  
 구상작가 2백호, 신세계미술관, 서울
- 1980 한국화랑협회 12인, 현대화랑, 서울
- 1977 제 18회 구상, 현대화랑, 부산  
 서양화 30인, 길화랑, 서울
- 1975 공간미술대상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 14회 구상, 대구시립도서관화랑, 대구

#### 수상

- 1976 제 3회 한국일보사 한국미술대상 최고상
- 1972 구상공모전 Y氏상
- 1971 구상공모전 금상
- 1969 구상공모전 은상
- 1965-80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5회, 입선 9회

####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국회의사당, 서울

한국일보사, 서울

프레데릭 R. 와이즈만 예술재단, 로스앤젤레스, 미국